

(사)한양법학회 인터넷회보

Internet Newsletter for Han Yang Law Association

www.hanyanglaw.or.kr

◆ 발행인(회장) : 김재중 교수
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편집인(총무이사)

이호용 교수
04763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E-mail: hoyongr@hanyang.ac.kr

김관기 교수
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mail: pangikim@hanmail.net

♣ 제2020-02호 (2020. 12.)

인사말



존경하는 한양법학회 회원 여러분!

제 임기1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코로나로 시작되어서 코로나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2학기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상당히 안정되어 대면수업을 병행하고 있었습지만 최근 다시 거리두기 3단계가 논의될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 다시 시작되고 있고 캠퍼스에도 젊음의 함성과 노래는 사라지고 적막하기만 합니다. 학자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감염증이 지속되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는 영업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많은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0년 9월 11일에 개최된 추계 학술대회가 무탈하게 마무리 된 것은 다행스런 일입니다. ‘우리사회의 젠더 이슈와 법’이라는 주제로 발표자와 사회자, 토론자 등 학술대회 참가자와 방청을 위해 찾아 주신 회원들께서 철저한 방역계획에 동참하여 주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학술대회를 빛

내 주신 회원님들과 멀리서 발표 토론을 위해 참석하여 준 연구자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2월 18일 동계 학술대회를 무사히 마치게 된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공사법의 이론과 실무상 쟁점’이었습니다. 학술대회가 꼭 필요한 행사이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1일 1,000명에 이르는 대유행 단계라서 한 자리에 모이지 아니하고 줌(ZOOM)을 통하여 발표자와 토론자의 발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발표와 토론 그리고 사회를 맡아 진지한 학술대회를 진행하여 주신 회원님들과 연구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창궐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한양법학 제31권 1, 2, 3, 4집이 발간되었던 것은 정말 기쁜 일이었습니다. 30년간 한양법학 학술지가 발행되어 오는 동안 법학분야의 훌륭한 논문들이 투고 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게재되어 온 전통을 이을 수 있어 행복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치열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뜨거운 연구열정을 불태우신 연구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술지가 간행되는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편집위원장을 비롯한 편집위원님들, 논문을 심사하여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양법학회 회원 여러분!

동계 학술대회를 마치고 열린 2020년 한양법학회 정기총회에서 다음 해 우리 학회를 이끌어 갈 회장에 주용기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연구교수, 감사에 이기욱 호원대학교 교수, 박진근 대전대학교 교수가 각 선출되었습니다. 탁월한 능력과 온화한 인품을 보유하신 세 분이 차기 임원으로 선출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주용기 차기회장님을 중심으로 한양법학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양법학회 회원 여러분!

제가 회장 임기를 시작하면서 김판기 총무이사님을 비롯한 집행부를 구성하고 나름대로 의욕을 보였습시다만 코로나 사태가 오는 바람에 더 많은 학술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회원 여러분들과 한 자리에 모여 소통하지 못한 것이 마음의 부담으로 남습니다. 집행부에 기꺼이 합류하여 주신 이사님, 간사님, 또한 회원 여러분의 너그러운 해량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효과를 발하여 듣기만 해도 설레는 명칭 “한양법학회” 기치 아래 얼굴 마주 보고 그동안 만나지 못한 회포를 푸는 기회가 자주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어 풍성한 결실을 거두시고, 다가오는 새해는 황소처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 마침내 뜻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실 것을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학문적 발전을 진심을 다하여 응원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새해에 축복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2020년 12월 21일

(사) 한양법학회 회장 김 재 중

공 지 사 항

1. 회비 납부 안내

회원님들의 회비는 우리 한양법학회의 학술적 활동과 관련하여 중요한 재정적 기초가 되므로, 연회비를 아직 납부하지 못하신 회원님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납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 회 비 : 회장 100만 원, 부회장 20만 원, 감사·직무이사·전공별 이사 15만 원, 이사 10만 원, 일반회원 3만 원, 평생회비 50만 원
- ◎ 납부계좌 : 신한은행 100-032-032102 (예금주 사단법인 한양법학회)

※ 회비 납입 관련 문의

연회비 납입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간사(당연직 이사) 윤진아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jinny1001@naver.com)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비 납부 현황

가. 평생회비 납부자 현황(2020년 12월 18일 기준)

연도	납부자
2009년	신재호, 정필운, 김판기, 송호신, 이훈중, 박도희, 오성근, 박진근, 이광진, 김학기, 최문희, 정준우, 손수진, 손윤하, 이부하, 박철호, 성승제, 김재중, 김선광
2010년	김성필, 이상명, 김상태, 윤창술, 손영화, 문무기, 안성경, 박수곤, 박지원, 소성규, 박성호, 나태영, 성희활, 이호용, 고형석, 박찬운, 소삼영, 윤현석
2011년	이영중, 김종세, 이현석, 황만성, 박윤철, 황현락, 최영진
2012년	최성근, 김지석, 오승규, 이지민
2013년	조인호, 박효근, 봉영준, 김종일
2014년	김영국, 위계찬, 조석현
2015년	최현태, 황현영
2016년	김근주, 이희중
2017년	김형섭
2020년	예상균

나. 2020년 연회비 납부자 현황

납부일	납부자	금액	비고
20201124	한성훈	50,000	
20201103	박창석	50,000	
20200514	정준우	100,000	
20200415	지광운	50,000	
20200113	이주희	100,000	2020 회비
20200113	이주희	100,000	2019 회비
소계		450,000	